

문-정-천 복잡하게 얹힌 정치 인연

〈재인〉 〈동영〉 〈정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내각서 함께 호흡하다

4·29보선 정치생명 걸고 '외나무다리 결투'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문재인 대표와 정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와 내각서에서 손을 맞춰 함께 일했지만 4·29 보궐선거에서는 정치적 운명을 걸고 물러설 수 없는 일합을 거둬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국민모임 소속으로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과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전 의원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칼을 거는 형국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 전 의원은 지난 3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청 전 의원의 국민모임 합류에 대해 “정치는 생물이니 선거 후 여러 대화가 가능하다. 국민모임에 청 전 의원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손을 내밀었다. 청 전 의원은 공개적 연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애권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과거 세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힘을 모았으며 참여정부의 핵심으로 활동했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문 대표는 부산선대위 상임본부장으로, 청 전 의원은 국민참여운동본부장으로 활약했다.

또한, 문 대표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지냈고 정 전 의원은 내각에 참여, 통일부 장관 등을 지냈다.

둘의 관계가 빠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총선으로,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 이던 정 전 의원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총선 출마를 종용했으나, 문 수석은 “나는 정치인 체질이 아니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여기에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해체 과정에서 정 전 의원과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표의 갈등은 크게 증폭된 바 있다.

지난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임시 지도부 인선은 문 대표와 정 전 의원의 결별을 초래한 계기로 작용했다.

문 위원장은 계파 수장만 지도부 참여 대상이라며 정 전 의원은 비대위원장회에서 배제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자신을 당에 몰아내려는 전노 주류의 의도라고 판단하고 ‘탈당’을 선택했다.

청 전 의원과 문 대표도 인연에서 악연으로 바뀐 케이스다. 청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노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문 대표와 좋은 연을 맺었다.

2005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있던 강경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천 법무장관이 불구속수사 지휘권을 발동,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자 당시 문 민정수석은 “사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천 장관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문 대표와의 사이가 소원해졌고, 새정치연합 탈당으로 둘의 관계는 마침표를 찍게 된다.

야권에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세 사람 사이에 물고 물리는 관계를 매듭짓는 종지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누리·새정치, 4·29재보선 공약 대결

與, 광주 제2노인복지관 건립 약속

野, 최저시급 8천원·전세 2+2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1일 4·29 재보선 공약을 내놓고 대결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지역별 맞춤 공약을 내놓은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 등 국가 정책 차원의 공약을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김무성 대표 주재로 ‘새줌마, 우리 동네를 부탁해’ 공약발표회를 열어 광주 서을 정승, 서을 관악을 오신환, 인천 서·경화를 안상수, 경기 성남·중원 신성진 후보 등 출마자 4명의 지역별 공약을 발표했다. 이 발표회 직후 정승 후보는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와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가정신일자리창출센터 설립 ▲서장·마을 문화예술관단지 조성 ▲광주 제2노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우선 “현대의 선거사무실을 일자리창출센터로 만들어 광주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취업 세일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장동과 마을동 일대에 정부 예산 지원으로 문화예술관단지를 조성, ▲남도음식 클러스터 ▲문화교육특구 ▲아시아프랜들리단지 ▲현우힐링 리조트 등을 만드는 ‘서장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또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여유있는 노후를 즐기고 노인일자리 창출 역할과 기능을 담아낼 수 있는 광주 제2노인종합복지관

을 건립하겠다”며 “이 모든 공약은 중앙 당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이날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득주도 성장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형 복지 확충 등 3대 정책을 제시하는 공약집을 내놨다.

‘10대 약속’이라고 명명한 세부 공약에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선인 시간당 8000원으로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현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 4.7%에서 1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보육 대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600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입으로 매년 10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해 직장인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금감면으로 자영업자를 돋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교통·아파트관리비 등 필수 생활비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완화,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 단계적 지원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백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정현 “발전 가능성 큰 광주 광산업 최대한 정책반영 노력”

새누리 중기특위 현장 간담회

기업 대표 등 애로사항 청취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방문도

이정현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은 지난 31일 “광주의 광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월출동 한국기술원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성공버스 현장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새누리당 중소기업특위가 마련한 자리로, 특위위원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유관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광(光)관련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나기수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현재 광주 광산업의 경우 정부지원이 종료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광주과기원의 연구결과물을 기업에 제공해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특위에 요청했다.

이재수 골드텔 대표는 “광통신의 경우 10년 이상 내공을 키워왔는데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연구개발(R&D)에 대한 폭을 넓혀 해외수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마련해줄



지난 31일 오전 광주시 북구 한국기술원에서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별위원회 성공버스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이정현 특위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용진 광주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LED보급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석기 세명이안시 대표는 “기술력을 축적한 창업기업에도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재수 골드텔 대표는 “광통신의 경우 10년 이상 내공을 키워왔는데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연구개발(R&D)에 대한 폭을 넓혀 해외수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마련해줄

대로, 두레정과 대표, 공구상가조합, 양동시장 대표 등이 참석해 특위 위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상인들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복합주차장 건립, 도매시장 하역 노동자 하역비 조정, 상가 매매 시 실거래가 적용 등을 건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호남 시민단체 “선거제도·정당법 바꿔야”

광주주민자치21, 대구참여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 영호남 3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선거제 도개혁과 정당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에서 “4월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적 대결 구도, 특히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영호남 편 가르기로 심화하고 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으로 ‘지역분할-지역독점정치’를 청산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정당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가로막고 지역독점정치와 거대 전국정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정당 설립, 정치적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선관위, 내년 총선 공정선거지원단원 모집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및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관계법 안내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등을 담당할 공정선거지원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의 당원이 아

니어야 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정선거 지원단원은 시 2명, 구 1명씩 총 7명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광주시선관위 홈페이지(gj.nec.go.kr)에서 지원 서류를 내려 받아 광주시선관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43기 결산 공고

연 결 재 무 상 태 표

(단위: 원)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1. 유 동 자 산	799,237,439,594	1. 유 동 부 채	773,324,048,887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173,492,009,433	2. 선 수 금	318,541,046,814
2. 단기금융상품	2,813,917,420	3. 미 지 금	45,409,599,111
3. 당기순이익금융자산	0	4. 미 지 금	77,381,386,822
4.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318,920,000	5. 예 수 금	10,228,223,535
5. 매출채권	444,843,022,534	6. 단 기 차 입 금	119,380,434,997
6. 단기대여금 및 기타채권	81,781,976,252	7. 유 동 성 장 기 차 입 금	27,100,000,000
7. 선금	9,217,685,682	8. 유 동 성 장 기 차 입 금	3,600,000,000
8. 선금공사원가	23,081,076,142	9. 유동성자산유동화채무	100,264,981,177
9. 당기법인세자산	572,594,610	10. 유 동 성 당 부 채	0
10. 재고자산	4,819,526,839	11. 예정부분자산감정과 적정판단부채	71,418,376,431
11. 기타유동자산	4,703,940,282	12. 비 유 동 부 채	0
12.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53,592,770,400	1. 장 기 선 수 금	430,141,173,916
		2. 사 장 기 차 입 금	80,100,000,000
		3. 장 기 차 입 금	224,565,206,219
		4. 순 확 정 금	34,428,032,512
		5. 충 당 부 채	52,729,751,486
		6. 예 보 증 부 채	38,318,183,699
		부 채	1,203,465,222,803
		I. 자 본	171,549,755,000
		II. 자 본 임 여 금	17,109,155,814
		III. 자 기 주	-321,262,611
		IV. 기 태 포괄 손익누계액	21,262,000,698
		V. 이익여금(결손금)	91,303,180,092
		비 지 배 지	0
		분 차 본 총 계	300,902,828,993
자 산 총 계	1,504,368,051,79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504,368,051,796

상기와 같이 공고함.

2015년 4월 1일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錦湖産業株式會社 금호산업

代表理事 社長 元一宇
代表이사 대표이사 김교태

감사의견 : 상기 제43기 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소장 초빙공고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광주 과학기술원법에 의거 1993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중심대학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산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주요 연구소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